

# “500만달러 정상적 투자금” 해명할 듯

■ 廉 전 대통령 서면질의 답변 뭘 담을까

## “정상문 12억 횡령은 몰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받고 23일 변호인단을 소집해 답변 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에는 그동안 ‘대변인’ 역할을 해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실장과 함께 전혜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실장 등 과거의 참모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문 전 실장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 소속으로, 그동안 자신의 사촌 동서인 연철호씨를 변호해 온 정재성 변호사도 나섰다. 연씨와 정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다.

◇답변 내용은 =검찰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구체적 답변 방향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험구하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변호인과 협의해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실장도 “기본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답변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또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 스타일처럼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어조로 답변서에 쓸 것을 내비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둔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장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답변서에 담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명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5천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100만 달러, 3억원에 대해선 권양숙 여사가 ‘미처 깊지 못한 빚’을 깊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명을 재확인하고, 응처에 대해서는 체권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과 조카사위 연철호씨 간 500만 달러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허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라는 설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서 제출시기에 대해 “되는대로 검찰과 협의해 보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께 완성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검찰은 소환조사 대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마지막 접점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3일 정 전 비서관과 비자금 계좌 개설을 도와준 지인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에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토·소환 조사 시기를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에 앞서 서면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23일 오후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뒤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사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서면질의서를 받는 등 소환 준비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가 감돌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심경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잘 나타나 있다”며 사저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의 폐쇄를 선언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관리자에게 폐쇄를 제안 했지만 노 전 대통령 훈사자 폐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관리자가 회원들과 협의해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전날 밤 문재인

## ‘폭풍전야 고요’ 감도는 봉하마을

### 유시민 전 장관盧 사저 위로 방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로부터 서면질의서 원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답변서가 작성되는 대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문 전 실장이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전에 사저를 다녀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전날 밤 문재인

이날 오전에는 특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와 2시간 간 기량 머물다 돌아가 눈길을 끌었다. 김정식 계열의 양복을 입은 유 전 장관은 자신이 태고 온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려 뒷짐을 진 채 무거운 표정으로 노 전 대통령 사저의 현관 계단을 올랐다.

유 전 장관은 사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을 지난 분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져 인간적인 위치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위로 드

리고 사는 이야기 좀 하고 간다”고 말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수 비서관은 “오늘 오후 대구에서 강의가 있는 유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글을 보고 무작정 왔다고 한다”며 “노 전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장관사절 이야기와 균형, 잡필증인 책 등 편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날 봉하마을은 농번기를 맞아 오전 일찍부터 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논밭을 갈거나 마을 인근의 연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심는 등 분주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 노 전 대통령 사저 와는 대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 만찬파! 천구야

•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행사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동창생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주최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주최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출연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